

WEBVTT

00:00:30.642 --> 00:00:31.546

안녕하십니까?

00:00:31.646 --> 00:00:34.353

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.

00:00:34.453 --> 00:00:39.797

오늘 강의의 주제는 여자는
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입니다.

00:00:39.897 --> 00:00:43.501

저도 여자이기는 하지만
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요?

00:00:43.601 --> 00:00:44.948

어떤 힘에서 사는가요?

00:00:45.566 --> 00:00:50.536

그런데 여자의 삶을 이것을
모델이다, 이것이 모범이다 하고

00:00:50.700 --> 00:00:53.197

정형화하기에는 우리 여성의 삶은

00:00:53.297 --> 00:00:55.994

실로 너무 다양하다고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0:56.094 --> 00:00:57.871

그래서 참 규정 짓기가 힘든데요.

00:00:57.971 --> 00:01:02.077

그래서 오늘은 두 천재
예술가 그들의 삶

00:01:02.248 --> 00:01:06.033

또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
여성은 이런 힘에 의해서

00:01:06.133 --> 00:01:09.710

살아가는구나 하고 이야기를
드려볼까 합니다.

00:01:09.810 --> 00:01:15.682

제가 여성의 삶에 대해서
이야기할 때는 불굴의 여인,

00:01:15.782 --> 00:01:21.406

폭탄을 두른 푸른 리본, 프리다
칼로의 사례를 참 많이 듭니다.

00:01:21.588 --> 00:01:24.021

그래서 저는 프리다 칼로의
그림을 보면서

00:01:24.121 --> 00:01:29.114

정말 예술은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
질문을 던져주는구나 하는

00:01:29.214 --> 00:01:30.819
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

00:01:30.919 --> 00:01:34.659
그래서 제가 처음
프리다 칼로를 만났던 그림은

00:01:34.759 --> 00:01:40.920
바로 여러분이 보기에
좌측에 있는 작은 사슴입니다.

00:01:41.020 --> 00:01:48.932
대부분 한국의 여인이 이 작은 사슴
그림을 보고 정말 아프다,

00:01:49.032 --> 00:01:53.552
참 따갑다, 참 상처가 있는 것 같다
이런 표현을 하는데요.

00:01:53.652 --> 00:01:59.519
우리나라에 프리다 칼로전이
소마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에

00:01:59.619 --> 00:02:04.618
전시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
40대, 50대, 60대

00:02:04.784 --> 00:02:08.928
중년의 아픔을 가지고 열심히
살아가는 우리 여인들이

00:02:09.028 --> 00:02:11.807
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.

00:02:11.907 --> 00:02:14.694
그림으로써 대박 난다는 소리를
듣기 참 쉽지 않은데요.

00:02:14.794 --> 00:02:19.159
그런데 프리다 칼로전에 엄청나게
많은 여인이 몰려왔는데요.

00:02:19.259 --> 00:02:21.183
그래서 한 기자가
인터뷰를 했습니다.

00:02:21.283 --> 00:02:23.463
왜 프리다 칼로를 좋아하느냐?

00:02:23.563 --> 00:02:27.847
보통 우리 여자들은
누구나 한두 가지쯤은

00:02:27.947 --> 00:02:32.869
아픔이나 고통이나 콤플렉스나
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죠.

00:02:32.969 --> 00:02:37.979
그런 걸 견디면서 살아가는데
이 프리다 칼로라는 여자는

00:02:38.079 --> 00:02:43.542

어쩌면 모든 사람이
가질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

00:02:43.677 --> 00:02:46.139

어떻게 한 여자가 다
가지고 사느냐?

00:02:46.239 --> 00:02:49.951

그리고 그런 아픔과 고통
속에서 좌절하지 않고

00:02:50.051 --> 00:02:53.878

예술적으로 승화해서
아주 훌륭한 예술가로

00:02:53.978 --> 00:02:58.089

이렇게 후대 여인들에게
많은 귀감을 주고 있다.

00:02:58.189 --> 00:02:59.293

그래서 정말 감동이다.

00:02:59.453 --> 00:03:03.448

그녀의 삶 자체가 너무 감동이라고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03:03.671 --> 00:03:08.651

저도 같은 동시대의 여인으로서
이 작은 사슴을 봤을 때

00:03:08.751 --> 00:03:11.647

여러분, 그림을 보니까
어떤 느낌이 들어요?

00:03:12.304 --> 00:03:14.834

머리는 아주 화려한 왕관을 썼죠.

00:03:14.934 --> 00:03:19.353

요즘 현대 여성들이 자기 삶에
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에

00:03:19.453 --> 00:03:24.195

많은 공부와 커리어와 스펙과
이런 활동을 하면서

00:03:24.429 --> 00:03:26.474

정말 좋은 왕관을 쓰고 있죠.

00:03:26.574 --> 00:03:30.647

그리고 얼굴은 정말 완벽하게
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.

00:03:30.747 --> 00:03:32.645

그렇지만 몸에서는 어때요?

00:03:32.745 --> 00:03:36.577

주변에서 자신에게 쏘아대는
책임과 의무 때문에

00:03:36.677 --> 00:03:41.663

엄청난 고단함과 힘듦으로
받은 상처로 인해서

00:03:41.763 --> 00:03:43.184
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죠.

00:03:43.284 --> 00:03:46.893
그렇지만 내 다리로 딱 버티고
어느 하나 굽은 다리 없이

00:03:47.047 --> 00:03:50.647
딱 버티고 자신의 일생을
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.

00:03:50.747 --> 00:03:53.149
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참 아픈 게

00:03:53.249 --> 00:03:56.619
주변에 있는 나무들이
든든한 고목 같잖아요.

00:03:56.732 --> 00:03:59.953
그런데 자세히 보면
썩은 고목들이에요.

00:04:00.053 --> 00:04:03.965
이 작은 사슴에 힘이
되어줄 것 같은 나무들이

00:04:04.065 --> 00:04:07.798
전혀 힘이 되어줄 수 있는
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

00:04:07.898 --> 00:04:12.286
희망이라고는 저 멀리 조그맣게
보이는 희망의 창 같은

00:04:12.386 --> 00:04:13.439
바다가 보이죠.

00:04:13.539 --> 00:04:17.191
그다음에 이 어린 사슴이 쉬고
싶은, 휴식을 취하고 싶은

00:04:17.291 --> 00:04:22.037
그늘을 쫓아 할 나뭇가지는
땅바닥에 꺾여 있어요.

00:04:22.137 --> 00:04:26.581
그래서 얼마나 이 어린 사슴이
고단한 삶을 살아가는가?

00:04:26.681 --> 00:04:30.580
가슴에, 온몸에 피를 철철
흘리면서 살아가는가?

00:04:30.680 --> 00:04:32.468
정말 아련하고 아파 보이죠.

00:04:32.620 --> 00:04:36.116
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다 투영하지

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

00:04:36.288 --> 00:04:40.071

그다음에 옆에 보면
철제 깃스를 하고 있는 여인의

00:04:40.256 --> 00:04:44.753

온몸에는 못으로 자신 삶의
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

00:04:44.853 --> 00:04:48.840

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고통은
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에 대한

00:04:48.940 --> 00:04:52.493

끝없는 탐구와 고백이라고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04:52.593 --> 00:04:57.035

프리다 칼로는 자기 삶에 있어서
대형 사고가 2번 있었다.

00:04:57.445 --> 00:04:59.952

첫 번째는 교통사고이죠.

00:05:00.052 --> 00:05:02.770

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
저렇게 깃스를 하고

00:05:02.870 --> 00:05:08.662

47세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
38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하면서

00:05:08.762 --> 00:05:13.046

자신은 일생의 3분의 1을
침대에 누워서 살았다.

00:05:13.146 --> 00:05:16.451

그래서 내가 죽거든
절대 땅에 묻지 말고

00:05:16.551 --> 00:05:20.420

화장해서 저 망망한 바다에
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도록

00:05:20.520 --> 00:05:23.629

떠워달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.

00:05:23.729 --> 00:05:28.088

그 정도로 수술과 고통 속에서
산 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.

00:05:28.188 --> 00:05:30.449

그다음에 두 번째
대형 사고가 뭐냐면

00:05:30.549 --> 00:05:33.842

남편 디에고 리베라와의 만남입니다.

00:05:33.942 --> 00:05:40.225

정말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의

국민적 영웅이고 사상가이고

00:05:40.325 --> 00:05:45.671

예술가고 그래서 국민한테
대단한 존경을 받는

00:05:45.771 --> 00:05:49.834

시인인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
부인입니다, 프리다 칼로가.

00:05:49.934 --> 00:05:56.557

그들의 예술적인 영감 때문에 남편으로
디에고 리베라를 만났는데요.

00:05:56.657 --> 00:05:59.775

정말 이들의 사랑은 세기의
로맨스라고 할 정도로

00:05:59.875 --> 00:06:04.138

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가
됐지만 정작 프리다 칼로

00:06:04.291 --> 00:06:07.797

한 여인의 삶으로서
이 디에고 리베라가 엄청나게

00:06:07.897 --> 00:06:11.136

여성 편력이 심하고
또 엄청나게 바람을 피우면서

00:06:11.236 --> 00:06:13.387

그렇게 되면 여자의 속을
썩이게 되는 거죠.

00:06:13.487 --> 00:06:19.294

심지어는 자기 여동생과 바람을
피워서 가슴에 상처를 줬는데요.

00:06:19.394 --> 00:06:23.034

그렇지만 우리가 프리다
칼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

00:06:23.134 --> 00:06:25.802

그렇게 몸이 아프고
불행하고 힘들어도

00:06:25.902 --> 00:06:28.802

절대 남자한테 매달리는
사랑을 하지 않습니다.

00:06:28.902 --> 00:06:31.277

절대 집착하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.

00:06:31.377 --> 00:06:35.150

자기 삶이나 사랑 자체도
주도적인 사랑을 합니다.

00:06:35.250 --> 00:06:39.767

그래서 디에고 리베라가 떠날 때
당당하게 가라고 놓아줍니다.

00:06:39.867 --> 00:06:44.026

그래서 오히려 디에고 리베라가
결국은 다른 무수한 여인들을

00:06:44.126 --> 00:06:48.409

다 물리치고 프리다 칼로의
품에 돌아와서

00:06:48.509 --> 00:06:52.567

마지막 죽을 때 나는
머리로써 그림을 그리는

00:06:52.667 --> 00:06:58.231

아주 이성적인 예술가라면
당신이야말로 뜨거운 가슴으로

00:06:58.331 --> 00:07:02.300

그림을 그리는 진정한 예술가라고
이렇게 프리다 칼로의

00:07:02.400 --> 00:07:05.844

마지막 가는 모습을 가슴에
품어주었다고 합니다.

00:07:05.944 --> 00:07:11.243

프리다 칼로와 대변해서 제가 또
한 여인의 사례를 비교하면요.

00:07:11.343 --> 00:07:14.505

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.

00:07:14.605 --> 00:07:17.345

로댕의 여인 까미유 끌로텔인데요.

00:07:17.445 --> 00:07:22.785

프리다 칼로나 까미유 끌로텔은
로댕이나 디에고 리베라를 통해서

00:07:22.885 --> 00:07:26.673

예술의 문을 열고 넘어섰습니다.

00:07:26.841 --> 00:07:29.184

두 사람의 든든한
백그라운드가 됐겠죠.

00:07:29.323 --> 00:07:33.154

그렇지만 프리다 칼로는
당당하게 자신의 벽을

00:07:33.215 --> 00:07:39.352

남자가 주는 아픔과 상처를
그 벽을 당당하게 뛰어넘고

00:07:39.452 --> 00:07:41.440

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삽니다.

00:07:41.540 --> 00:07:45.861

그렇지만 까미유 끌로텔은
그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.

00:07:45.961 --> 00:07:49.839

그래서 항상 둘이 사랑을 하고
예술적으로 영감이 통했지만

00:07:49.939 --> 00:07:51.446
항상 이렇게 원해요.

00:07:51.546 --> 00:07:52.834
나를 택해라.

00:07:52.982 --> 00:07:54.224
누구를 택할 것이냐?

00:07:54.324 --> 00:07:56.792
그래서 로댕은 본부인이 있었죠.

00:07:56.892 --> 00:07:59.856
그래서 로댕은 그 부인을
버릴 수 없다.

00:07:59.956 --> 00:08:06.314
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까미유
끌로델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

00:08:06.414 --> 00:08:11.458
선택받을 수 없다는
그 고통, 그 절망으로

00:08:11.558 --> 00:08:17.959
그 벽을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
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

00:08:18.059 --> 00:08:22.946
정말 천재적인 역량을
가졌지만 비운의 예술가로

00:08:23.046 --> 00:08:24.749
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.

00:08:24.849 --> 00:08:29.445
그래서 까미유 끌로델과
로댕의 사랑을

00:08:29.545 --> 00:08:31.920
작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.

00:08:32.607 --> 00:08:35.226
프리다 칼로는 당당하게
그 벽을 뛰어넘어서

00:08:35.326 --> 00:08:37.902
결국은 디에고 리베라를
돌아오게 했지만

00:08:38.002 --> 00:08:42.687
까미유 끌로델의
중년이라는 작품을 보면

00:08:42.852 --> 00:08:46.466
자신을 버리지 말라는
자신을 떠나지 말라는

00:08:46.597 --> 00:08:50.655

그런 애절한, 엄청난
로댕에 대한 집착이죠.

00:08:50.755 --> 00:08:53.410

이런 거를 조각을 통해서 발표하고

00:08:53.510 --> 00:08:56.148

결국은 자신을 선택해 주지
않은 것에 대한

00:08:56.283 --> 00:09:00.751

분노,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
작품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.

00:09:00.930 --> 00:09:04.512

작품의 부서짐과 함께 한 여인은,
천재적인 예술가는

00:09:04.612 --> 00:09:07.602

파멸의 길로 들어서서
결국은 정신병원에서

00:09:07.702 --> 00:09:10.784

그녀의 마지막 생을
마감하게 되는데요.

00:09:10.884 --> 00:09:16.742

까미유 끌로델의 벽을 넘지
못하는 사랑이 같은 한 여인을

00:09:16.842 --> 00:09:21.288

모델로 해서 두 편의 영화가
방영된 적이 있습니다.

00:09:22.352 --> 00:09:29.666

1988년에 제라드 드 파르디유와
이자벨 이자니의

00:09:29.849 --> 00:09:37.171

이 영화는 정말 한 예술가의 사랑과
낭만과 방황과 고뇌를 그린

00:09:37.271 --> 00:09:39.560

아주 낭만적인 예술 영화예요.

00:09:39.660 --> 00:09:46.275

그렇지만 브루노 뒤몽 감독은
칸이 격찬해 마지않았던

00:09:46.375 --> 00:09:47.770

천재적인 감독이죠.

00:09:47.845 --> 00:09:52.549

그래서 2013년에 개봉됐던
줄리엣 비노쉬가 혼자 나옵니다.

00:09:52.574 --> 00:09:54.084

로댕은 나오지 않아요.

00:09:54.184 --> 00:09:56.215

이자벨 이자니에서는
제라드 드 파르디유가

00:09:56.315 --> 00:10:02.084
로댕의 역할로 나왔지만 뒤몽 감독은
한 여인의 내면적인 심리묘사

00:10:02.184 --> 00:10:06.332
그래서 줄리엣 비노쉬가 까미유
끌로텔의 역할을 하면서

00:10:06.432 --> 00:10:09.820
그 한 여인의 사랑과
절망과 분노와 파멸을

00:10:09.920 --> 00:10:14.306
쭉 내면적 심리묘사를
따라가면서 영화가 진행돼요.

00:10:14.406 --> 00:10:16.721
그래서 마치 흑백영화
같은 색채감이 없는

00:10:16.843 --> 00:10:20.329
그런 영화지만 굉장히
맑고 깨끗한 영화입니다.

00:10:20.429 --> 00:10:23.525
그래서 까미유 끌로텔의
또는 줄리엣 비노쉬의

00:10:23.652 --> 00:10:28.251
민낯의 영화라고 할 정도로
아주 우리에게 영상미가 뛰어난

00:10:28.445 --> 00:10:29.647
그런 영화입니다.

00:10:29.747 --> 00:10:35.293
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정신병원에서
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

00:10:35.393 --> 00:10:42.834
그 직전까지도 정신병원 따뜻한
봄별이 내리는 담벼락에 기대서

00:10:43.006 --> 00:10:45.810
아니야, 내일은 올 거야,
내일은 올 거야.

00:10:45.985 --> 00:10:49.575
그러다가 수용소에서
한 여자의 생을 마감하는

00:10:49.708 --> 00:10:52.994
정말 비운의 화가라고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10:54.102 --> 00:10:58.972
까미유 끌로텔과 프리다 칼로의

00:10:59.072 --> 00:11:02.344

여러분은 어떤 사랑을
하고 싶으세요?

00:11:02.444 --> 00:11:08.887

결국은 프리다 칼로와 같은 사랑을
대부분 여성이 꿈꿀 텐데요.

00:11:08.987 --> 00:11:12.559

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지금까지도
그녀의 많은 예술 작품이

00:11:12.659 --> 00:11:17.132

물론 영화화돼서 많은 사람에게
감동을 주기도 하지만

00:11:17.232 --> 00:11:20.001

그녀의 작품 세계가
지금 멕시코나 뉴욕에

00:11:20.101 --> 00:11:22.802

많은 전시 활동을 통해서
후대 여성들에게

00:11:22.902 --> 00:11:26.039

지금도 감명과 감동을
주고 있는 반면에

00:11:26.139 --> 00:11:30.633

까미유 끌로델은
이 영화 두 편만 남겨놓고

00:11:30.733 --> 00:11:36.134

자신의 사랑에 대한 배신 때문에
결국은 자기 작품을 다 부숴버려요.

00:11:36.234 --> 00:11:39.538

그래서 그녀를 기억할 만한 작품이

00:11:39.638 --> 00:11:42.948

우리 후손들에게 별로
남아 있지 않은 거죠.

00:11:43.048 --> 00:11:48.924

그래서 그녀의 천재적인 작품성,
예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

00:11:49.024 --> 00:11:52.997

여자이기 때문에 여인이기 때문에
한 남자의 사랑으로 인해서

00:11:53.097 --> 00:11:57.185

좌절당하는 자기의 운명과
생애가 좌절당할 뿐만 아니라

00:11:57.285 --> 00:12:01.144

그녀의 작품과 예술 인생까지도
좌절을 당해야 했던

00:12:01.244 --> 00:12:05.466

그런 아픈 두 여인의 삶을

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에게

00:12:05.566 --> 00:12:08.632

여자는 과연 무엇으로
살아야 하는가에 대한

00:12:08.732 --> 00:12:11.706

질문과 메시지를
던져 드리고 싶습니다.

00:12:20.264 --> 00:12:23.205

그러면 과연 여자는
무엇으로 사는가요?

00:12:23.305 --> 00:12:27.296

우리가 이때까지 쭉 까미유
끌로텔과 프리다 칼로

00:12:27.396 --> 00:12:32.602

두 여인의 삶과 사랑과
그녀들의 예술 세계를 통해서

00:12:32.702 --> 00:12:38.377

또 남편과 남자 간의 사랑 세계를
통해서 쭉 비교를 해 봤는데요.

00:12:38.477 --> 00:12:42.814

결국은 예술가가 됐든
평범한 여인이 됐든

00:12:42.914 --> 00:12:49.788

제가 7가지의 이렇게
열망하더라 하는 거로

00:12:49.909 --> 00:12:52.180

제가 요약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.

00:12:52.280 --> 00:12:55.160

첫 번째는 신데렐라
콤플렉스라는 거죠.

00:12:55.260 --> 00:12:58.500

이게 한 남자로부터 주목을 받는다.

00:12:58.600 --> 00:13:03.423

이것도 그렇겠지만 여자들은 어떤
위치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

00:13:03.523 --> 00:13:06.686

다른 누구보다 자신이
가장 주목받고 싶어 하는

00:13:06.786 --> 00:13:11.032

이런 신데렐라의 열망을
가지고 있더라는 거죠.

00:13:11.132 --> 00:13:16.577

그런데 만약에 이런 7가지의
열망이 그녀의 열망에도 불구하고

00:13:16.677 --> 00:13:18.263

충족되지 않을 때 어때요?

00:13:18.363 --> 00:13:19.777

이게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.

00:13:19.933 --> 00:13:21.854

그래서 신데렐라 콤플렉스.

00:13:21.954 --> 00:13:31.037

그다음에 슈퍼우먼 콤플렉스, 요즘
주부들이나 직장 여성뿐만 아니라

00:13:31.216 --> 00:13:35.353

또 열정적으로 자기의 전문 직업이나
예술을 하는 사람 모두가

00:13:35.378 --> 00:13:38.222

자기가 하고자 하는
일에 완벽하고자 하는

00:13:38.322 --> 00:13:42.058

그리고 모든 일을 내 손으로
다 해야 한다는 슈퍼우먼 콤플렉스,

00:13:42.233 --> 00:13:45.643

슈퍼우먼이 되고자
하는 거에 대한 열망과

00:13:45.743 --> 00:13:50.726

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콤플렉스
그다음에 착한 여자 콤플렉스.

00:13:50.826 --> 00:13:57.211

이거는 한 여자로서 남자뿐만
아니라 내 모든 주변 사람에게

00:13:57.311 --> 00:14:00.736

착하고 좋은 여자라는
이미지를 얻고 싶어 하는

00:14:00.836 --> 00:14:02.253

그런 열망인 것 같아요.

00:14:02.353 --> 00:14:05.755

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
콤플렉스로 비치게 되는 거죠.

00:14:05.855 --> 00:14:10.434

그다음에 딸 콤플렉스 같은
경우는 예술가의 삶이라기보다는

00:14:10.534 --> 00:14:14.784

일반 여인들의 삶 속에서
특히 딸이라는 위치를

00:14:14.884 --> 00:14:17.005

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
가지고 있는 책임감,

00:14:17.105 --> 00:14:18.847

특히 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.

00:14:18.947 --> 00:14:22.174

제가 느꼈던 이런 만팔
콤플렉스는 정말 살아오면서

00:14:22.274 --> 00:14:24.878

큰 콤플렉스가 됐던
사례가 있습니다.

00:14:24.978 --> 00:14:27.691

그다음에 여자이기 때문에
자기 외모에 있어서

00:14:27.791 --> 00:14:29.829

완벽하고자 하는 외모 콤플렉스.

00:14:29.929 --> 00:14:34.010

그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
뒤지지 않으려고 하는

00:14:34.169 --> 00:14:37.474

지성적인 여인이하고자
하는 지적 콤플렉스.

00:14:37.574 --> 00:14:41.531

그다음에 남자가 됐든
자신의 매력이 됐든

00:14:41.631 --> 00:14:44.923

성적으로 완벽하고자 하는
이런 성 콤플렉스.

00:14:45.023 --> 00:14:51.915

이런 7가지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자
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더라.

00:14:52.015 --> 00:14:54.098

그래서 이 욕망이
채워지지 못할 때는

00:14:54.198 --> 00:14:59.403

콤플렉스로 자기 자신에게
반영을 하고 있더라.

00:14:59.503 --> 00:15:02.928

그래서 이 시대에 결론적으로
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?

00:15:03.028 --> 00:15:07.429

이런 7가지에 대한 열망과
그 열망에서 부족한 것을

00:15:07.529 --> 00:15:09.842

보충하고자 하는
콤플렉스 이런 것에서

00:15:09.995 --> 00:15:11.916

살아가고 있지 않나
하는 생각이 듭니다.

00:15:12.322 --> 00:15:13.235

감사합니다.